



##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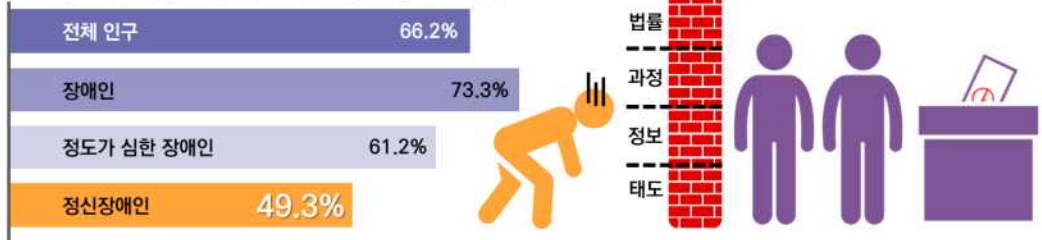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사회참여에는 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본 동향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여가활동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함.

### 정신장애인의 투표 경험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UN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보장의 필요성 제시

#### [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실태 및 참여 확대 방안 ]

· 자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20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장애인고용개발원, 2020),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UNDP, 2021) 번역 및 재구성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투표 참여



법률적 장벽	투표과정과시설의장벽	정보의 장벽	태도의 장벽
정신적 불안정 이유로 결정 능력의 법률적 제한	투표소 물리적 접근 및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움	선거 관련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지 못함	편견으로 비롯된 정당하지 못한 사회적 태도
❖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국내)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및 2018년 기존 금치산 신고가 효력을 다하며 법률적 제한은 다소 해소됨	❖ 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시설 이용자를 위한 거소투표 및 우편투표 등 대안 강구 ❖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선거 과정 구성	❖ 선거정보 및 투표과정 설명 등 관련 자료 제공 ❖ 내용이 명확하고 명료해 이해하기 쉬운 자료 구성	❖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위 감소 및 인식개선

###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확대

**전체인구와 장애인인구의 투표참여비교**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투표 참여 현황을 전체인구\*,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인 네 분류로 비교해봄.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에서 **전체 인구 집단은 66.2%로 집계되었음**. 이에 같은 선거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73.3%**가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61.2%**가 투표하였다고 응답함.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해당 조사는 재가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시설거주 또는 입원·입소자까지 감안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실제 투표율은 49.3%보다도 낮을 것이라 추측됨.

\* 전체인구의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실제 집계된 투표율

\*\* 장애인(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투표 경험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의한 응답 비율

**UNDP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투표참여 확대방안**

UN 개발 계획(UNDP)에서는 지적장애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이자 방법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2021년에 관련 자료를 통하여 제시함.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투표를 포함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는 이를 가로막는 법률, 투표과정과 투표소, 선거 정보, 태도의 **네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

\*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UNDP, 2021)

국내에서는 현재 2013년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의 금치산 선고 역시 2018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의 제한은 해소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투표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존재함. 향후 UNDP의 투표참여 확대 방안에 따라 (1)정신장애인의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2)현장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거소투표 및 우편 투표를 포함한 대체 방안들의 마련, (3)보다 알기 쉽고 친절함 내용으로 구성된 후보자 선전물 및 투표 절차 정보, (4)그리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등 정신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제반 사항의 마련이 필요하겠음.

**[ UNDP의 정신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수준의 지표 ]**

• 자료원 :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UNDP, 2021) 번역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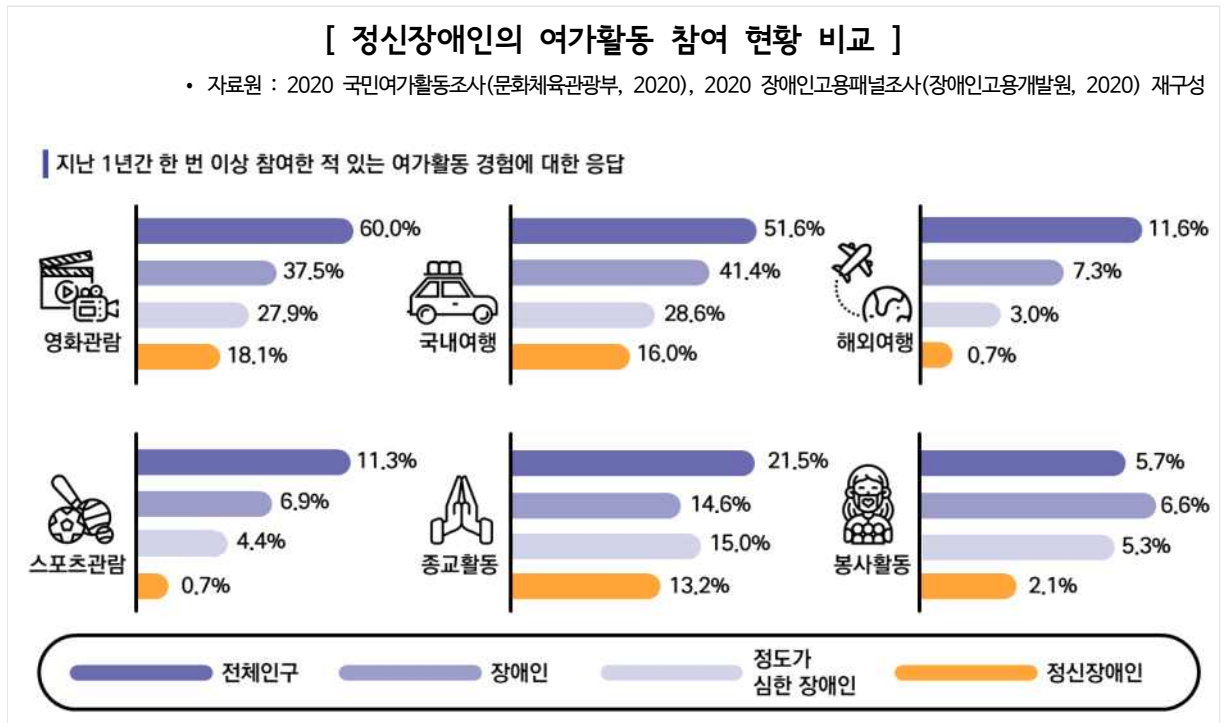
UNDP가 제시한 자료는 국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투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와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행동들의 내용을 지표로 작성하여 함께 포함하였음. 해당 자료는 전 세계로부터 모집된 인원으로 진행된 FGI를 통하여 제작되었으며 CRPD 및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음. 지표는 총 45개가 존재하며 선거 과정의 시점에 따른 4개의 분류, 1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음. 각 지표는 선거법으로 대표되는 법률 체계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서부터 각 정당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약의 마련, 선거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표의 선출, 투표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책 마련, 선거 이후의 분쟁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활동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UNDP는 이 지표를 토대로 각 국가의 선거 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요소들을 몇 가지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국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정신장애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신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현황은 전체 인구 대비 최대 6% 수준

전체 인구와  
장애인가구의  
여가활동  
수준 비교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인구와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지난 1년간의 여가활동 참여 경험의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정신장애인의 경우 모든 여가활동 영역에서 참여 경험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전체인구와 비교하였을 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엔 약 17배였으며, 장애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의 여가활동 영역에서 큰 격차를 보였음. 점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서비스 이용 및 자립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였을 때, 정신장애인의 여가활동 수준이 보다 증진되어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필요가 있음.

##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 가장 불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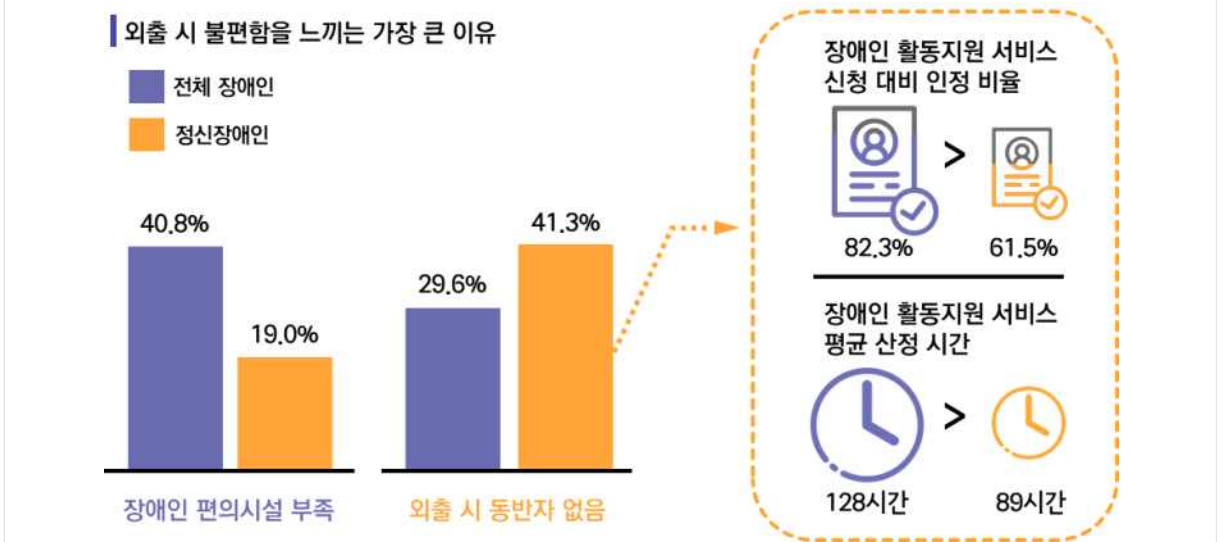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수급 대상을 선정하고 각 구간마다 월별 가용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2020 장애인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20)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응답에서 외출 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전체 장애인의 경우 40.8%의 응답자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을 꼽았으나, 정신장애인의 응답에서는 19.0%에 불과하였음. 정신장애인이 외출 시 가장 불편을 느낀 지점은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41.3%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외출 동반자의 존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남인순 의원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전체 신청 대비 인정률이 전체 장애인이 82.3%(1만 845명 중 8,923명)에 반해, 정신장애인은 61.5%(733명 중 451명)으로 집계되었음.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신청대비 인정율(61.5%)은 전체 장애인 인구 중 4번째로 낮은 수치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각 이용자가 가용할 수 있는 평균 산정시간의 경우 전체 장애인 이용자가 약 128시간을 산정받은 것에 비하여 정신장애인의 경우 89.4시간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모든 장애 유형의 이용자 집단 중 가장 적었음.

### [ 정신장애인의 외출 시 불편 이유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 자료원 : 2020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2021) 재구성



이러한 점에서 사회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음. 또한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정신장애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이 관련 연구를 통하여서도 제시되었음(김문근, 2019).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정신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 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정신건강동향 활용인용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바랍니다.

#### NMHC 동향

- vol.1; 2018. 3 조례로 보는 정신건강
- vol.2; 2018. 5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 vol.3; 2018. 9 세계 정신건강의 날 (WMDAY)
- vol.4; 2018. 10 한국인의 정신질환 질병부담
- vol.5; 2019. 1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분석 (중앙부처)
- vol.6; 2019. 1 [칼럼] 정신장애는 정말 있는가?
- vol.7; 2019. 2 [칼럼] 정신과 진단을 하면서 견뎌지는 이유
- vol.8; 2019. 3 정신건강통합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 vol.9; 2019. 4 정신장애인의 자살
- vol.10; 2019. 6 한눈에 보는 국외 정신건강 미디어 가이드라인
- vol.11; 2019. 8 정신장애인의 건강
- vol.12; 2019. 9 정신재활시설 현황
- vol.13; 2019. 10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
- vol.14; 2019. 11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

- vol.15; 2020. 2 2020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중앙부처)
- vol.16; 2020.4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 및 초발환자 의료이용현황
- vol.17; 2020. 5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
- vol.18; 2020. 6 UN에서 말하는 코로나19와 정신건강
- vol.19; 2020. 8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 진료현황
- vol.20; 2020. 10 시도별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현황
- vol.21; 2020. 12 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
- vol.22; 2021. 2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
- vol.23; 2021. 3 2021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중앙부처)
- vol.24; 2021. 7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
- vol.25; 2021. 11 정신질환과 사망
- vol.26 2022. 2 2022년 정신건강 관련 예산
- vol.27; 2022. 6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